

안경 이야기

콘택트렌즈



1962년에 발간된 미국 「호리레 이」란 잡지에 의하면 미국에는 400만명이 콘택트·렌즈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40세이하의 젊은 사람들로 주로 미용 목적으로 안경대신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콘택트렌즈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어 차차 그 수요가 증가되

어 안경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현대의 종아로 각광을 받게 된 콘택트렌즈의 역사를 살펴보면 1845년 『존·하아셀』이 「각막에 이상이 있을때 둥근형의 유리 캡셀속에 투명한 동물성 제리를 넣은것을 눈의 표면에 대면 비록 일시적이거나 딱딱히 보이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런데 콘택트렌즈라는 용어를 만든것은 스위스 의사인 『오이겐·훅』인데 이 사람은 1887년에 콘택트렌즈에 관한 독자적인 실험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에게 실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경이며 1940년초에는 여러가지 형의 콘택트렌즈가 제조되었으나 이들은 비교적 크고 장시간 참고 끼울수 있는 것이 못되어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겨들었을뿐 1940년 후반까지도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1950년 말에서 1960년대 중반에 걸쳐 더 이상 작아질수 없을 정도로 크기도 작아지고 또 합병증도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쓸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재료가 얇은 플라스틱(메칠·메타크리레이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물감과 오래 쓰면 통증때문에 못쓰는 사람이 있는점이 결점이였다.

1845년에 「하아셀」이 첫 힌트、實用化된 것은 60년대부터

